

# 로코 흥행 열쇠는 '캐스팅'

'잘떡' 배우 섭외 '김비서가 왜 그럴까' 상승세

역시 로코(로맨스코미디)는 '캐스팅'이 절반 이상이다. 캐릭터와 '잘떡'인 배우를 만나야 그맛이 산다.

19일 CJ E&M과 닐슨코리아의 6월 첫째 주(4-10일) 콘텐츠영향력지수(CPI·하단용어설명 참조) 집계에서 tvN 수목극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KBS 2TV 월화극 '너도 인간이니?'에 이어 2위로 신규 진입했다. CPI 지수는 260.0.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유치해 보이기도 한다.

성격 빼고 모든 걸 갖춘 재벌 남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외모에 똑소리 나는 비서 여주인공이 '퇴사' 문제를 놓고 '밀당' (을 가장한 로맨스)을 한다는 내용이 그다지 현실적이지도, 깊은 고민이 담겨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대한 시청자 반응은 뜨겁다. 1회부터 5.8%(닐슨코리아 유료가구)로 5%의

벽을 한 번에 넘더니 3회에서는 7.0%까지 치솟았다. 같은 로코 장르인 SBS TV '혼남정음', 장르는 다르지만 역시 로맨스극인 MBC TV '이리와 안아줘'가 5%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한동안 침체했던 로코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흥행의 일등공신은 역시 박서준, 박민영이다. 비현실적인 외모와 몸매를 갖춘 두 사람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 만화체 말투도 두 사람이 하면 그저 귀엽게 보이고, 맞춤 웃음 입은 것만 같다.

tvN 예능 '윤식당2' 이후 광고계 대상이 된 박서준은 이번 작품에서도 185cm 장신을 심분 활용하며 탁월한 '수트핏' (suit-fit)을 자랑한다. 나르키소스를 연상케 하는 자아도취적 대사를 역시 박서준이 능청스럽게 소화하는 덕분에 재미를 준다. 한참 코믹으로 가다가도 한 번씩 깊은 눈빛을 쏘주는 덕분에 '심

쿵(심장이 쿵, 설렌다는 뜻) 포인트'가 있는 것도 박서준의 공이다. 전작 '잠마이웨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다.

박민영 역시 첫 로코 도전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말총머리와 하이웨스트 스커트를 완벽히 소화 중인 그는 기존 로코 속 여주인공이 그저 귀엽기만 하고 '민폐 캐릭터' 같은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 것과 달리 예쁘고, 똑똑하고, 손해 보지 않는 '뽕순이'로 분해 더 호평받는다.

다소 여성적이고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는 스토리에도 두 사람의 완벽한 비주얼과 연기 덕분에 "로코는 이런 맛이 보는 것"이라는 시청 후기가 이어진다.

이와 달리 남궁민-황정음이라는 캐스팅으로 주목받은 '혼남정음'은 결국 캐스팅 실패라는 흑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연기로는 비판할 수 없고, 두 사람 간 호흡 역시 7년 전 확인된 것이지만 이번 작품은 마치 어른들이 아이 웃을 입은 것만 같다. 배우들의 흐른 세월을



커버하려면 스토리 역시 농익어야 하는 데 이야기는 20대 초반 연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탓이다.

결국, 로코 성패의 열쇠는 낮부끄러운 장면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캐릭터와 어울리는 배우들의 캐스팅, 남주인공 간 호흡, 그리고 배우들의 연령대와 특성에 맞는 스토리 및 전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편, 사연은 다르지만 '논란'이 호재가 된 SBS TV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

당'과 KBS 2TV 예능 '안녕하세요'가 각각 전주보다 21계단, 28계단 뛰어올라 3위, 5위에 자리했다.

최근 특점으로 건너간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매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의 위생과 맛, 장사 마인드를 자랑(?)하는 업주들이 나와 시청자가 가슴을 치게 한다. 오죽하면 백 대표도 당장이라도 방송을 그만둘 것 같은 액션을 취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랬던 업주들조차 변화시키는 백

대표의 '마법'을 보는 게 역시 이 방송의 백미다.

'안녕하세요' 역시 최근 말에게 지나치게 스킨십하는 아빠의 사연으로 논란이 됐다. 다수의 누리꾼이 '고등학교 2학년생 말에게 뽀뽀하고 엉덩이와 배를 만지는 건 비정상'이라고 지적하고, 가족 전체에 대한 악성댓글까지 이어지자 해당 인물은 결국 일부 누리꾼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연남뉴스

## "전 시즌과 다른 새로운 매력 나올 것"

깊이 있게 돌아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는 자신이 MC로 출연 중인 MBC에브리원 예능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시즌1에 비해) 시즌2는 조금 더 깊이가 생긴 것 같다"고 자신했다.

알베르토는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즌2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점차 나오기 시작했다. (시즌1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이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의 '생생한' 한국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여행 자체의 즐거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을 듣는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방송한 시즌1은 시청률이 5%(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돌파하면서 채널 기록을 다시 썼다.

짧은 휴지기 후 돌아온 시즌2 역시 스위스 편에서 시청률이 3.076%를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알베르토는 "시청자들은 외국인들이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진정한 있게 한국을 좋아해 주고,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좋게 봐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 핀란드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신나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 걱정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며 "또 스위스 친구들도 여행 전에는 '100% 스위스인'이었는데 하루하루 변화하는 게 보인다. 마지막엔 거의 한국인들 같았다"고 덧붙였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프로그램 특성상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

보니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관광객에서 나눠주는 안내책자가 부실한 탓에 외국인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현장을 보고 "기대 이하"라며 실망하는 경우가 그렇다.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문상돈 PD는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주는 순간 편견이 생긴다. 정보를 주면 직접적인 개입이 된다"며 "외국인들은 정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향을 피우는 칠판 향로를 보고서도 '저기서 김치를 만드는 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장면을 잘 연출하지 못한 건 제작진의 부족함 탓이다. 외국인들의 자제나 태도를 육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로그램 특성상 (과거에 방송한 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출연진이 가서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게 방송의 재미라고 생각한다. 점점 특화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김치를 먹고 매워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됐지만, 그게 계속되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점점 출연진의 캐릭터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한다.



## '인크레더블2' 북미 신기록

애니메이션 사상 개봉 주말 흥행 1위

디즈니 픽사의 '인크레더블2'가 북미 박스오피스(영화 흥행수입)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개봉 주말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18일(현지시간) 할리우드 연예매체와 박스오피스 집계기관 컴캐스트 등에 따르면 '인크레더블2'는 지난 주말 북미 시장에서 1억8,320만 달러(약 2,020억원)의 흥행수입을 올려 2년 전 여름 '도리를 찾아서'의 종전 흥행기록(1억3,500만 달러)을 거의 5,000만 달러가

까이 초과했다.

'도리를 찾아서'도 픽사 작품이었다. '인크레더블2'는 여름방학 성수기에 조금 못 미쳐 개봉했는데도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인크레더블2'의 첫 주말 글로벌 흥행 기록은 2억3,150만 달러(약 2,550억원)에 달했다.

'인크레더블2'는 올해 개봉 주말 흥행에서는 디즈니 마블의 10주년 기념 대작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와 할리우드 블

랙파워를 입증한 마블 블록버스터 '블랙팬서'에 이어 3위에 오를 정도로 티켓파워가 막강했다.

콘텐츠왕국 월트디즈니에 인수된 픽사는 지난해 멕시코 망자의 날 풍습을 소재로 한 감성 애니메이션 '코코'가 한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는 등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2년 연속 대박 작품을 선보였다.

크레이그 T. 넬슨, 사무엘 잭슨, 훌리언트 등 유명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은 '인크레더블2'는 아빠 밥이 육아를 책임지는 히어로로 좌충우돌하며 엄마 히어로 헬렌과 함께 정체불명의 악당에 맞서는 슈퍼파워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 미국 래퍼 텐타시온 총기 사망... 향년 20세

미국 래퍼 엑스엑스엑스텐타시온(XXXTentacion·본명 자세 드웨인 은 프로이)이 총에 맞고 사망했다. 향년 20세.

미국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 셰리프에게 따르면 엑스엑스엑스텐타시온은 18일(현지시간) 오후 4시께 플로리다 주 남부 디어필드 해변 인근 오토바이 딜러숍을 둘러본 뒤 자신의 BMW 스포츠 카를 타고 떠나다가 무장 강도를 당했다.

총에 맞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3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셰리프군은 용의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총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범행 직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명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용의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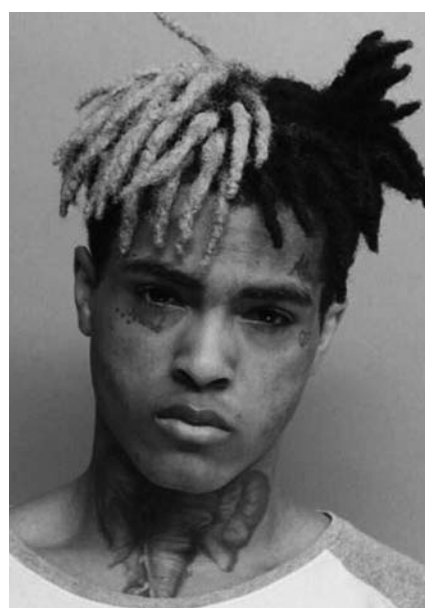
AP통신에 따르면 목격자 스테파니 마르티네즈(29)는 "두 사람이 엑스엑스엑스

스탄시온 지갑을 뒤졌다"고 진술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에는 동료 음악인들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래퍼 카니에 웨스트는 "명복을 빈다.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큰 영감을 받았는지 미처 말해주지 못했다"고 썼고, DJ 디플로는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작곡가 트래비스 바커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진짜 예술가였다"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데뷔한 엑스엑스엑스텐타시온은 지난 3월 발표한 두 번째 앨범 '?'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려놓으며 주목받았다.

그의 짧은 음악인생은 논란도 많았다. 2015년 저지른 가택침입으로 2016년 체포됐으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입소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또 체포돼 감옥에 수감됐다. 이후 증인매수 의혹도 제기됐다.



## 광주국악방송 남도마실 공개방송 '하하 하소서'

정가·남도민요·판소리 등 23일 대인예술야시장

광주국악방송남도마실이 여름특집 공개방송 '하하 하소서(夏小囍)-여름이 오는 소리'를 진행한다.

오는 23일 오후 7시 대인예술 야시장 유별난 예술극장에서 정가, 남도민요, 판소리, 창작음악 등 다채로운 우리음악을 만날 수 있다.

11번째 절기인 소서를 맞아 전통가곡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는 정마리 가격, 사천가의 주연 소리꾼이자 타니모션의 보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진 소리꾼, 힘찬 남도민요를 선보일 박무성과 최재일 소리꾼, 마지막으로 이창선대 김스타일이 출연해 대금의 맛과 멋을 표현한다.

이날 진행되는 공개방송은 오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

라디오 방송은 광주 FM 99.3MHz를



김소진 소리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 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딩더쿵 플레이어'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한편, 남도마실은 맛갈스러운 전라도 말과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며 청취자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된다. /이보람 기자